

금요 양성 6월 28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

참행복을 사는 것: 마태 5장 3-12절: 참행복 (마태 5장 3-12절)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다음의 해설에 대해 생각해보시오. 또한 그 아래에 기재된 프란치스칸 여정에 표시된 페이지와 회칙 조항을 읽어 보시오.

“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”

- 물질과 개인적인 의견에 집착하지 마라.
- 이것이 회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2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1조를 읽으시오

“행복하여라, 슬퍼하는 사람들!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.”

- 개인적 사회적 죄악에 대해 슬퍼하시오. 또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해 보시오.
- 회개는 위로를 가져다 준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2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서문과 7조를 읽으시오.

“행복하여라, 온유한 사람들!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.”

- 온유한 (온화한) 사람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만하거나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 일을 한다.
- 이 정신은 좋은 관계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2-213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3조를 읽으시오

“행복하여라,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! 그들은 흡족해 질 것이다.”

-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다루어져 하는 세상 건설에 충실한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3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5조를 읽으시오

“행복하여라, 자비로운 사람들!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.”

- 이것은 프란시스와 글라라의 정신을 반영한다.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손을 내민다.
- “자비를 보여주고 화해를 찾아라.”

+프란치스칸 여정 213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2조를 읽으시오

“행복하여라,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.”

- 우리는 굳은 신앙의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려 한다 - 우리는 예리하게 현실을 본다
- 우리는 모든 것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본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3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5,12, 13조를 읽으시오

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.”

- 우리는 “둘중 하나” 라는 선택적 해결책보다는 “둘다”를 포용하는 해결책을 찾는다. 우리는 서로에게 경청한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4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9조를 읽으시오

“행복하여라, 의로움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,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, 너희는 행복하다.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.”

-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,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 할거라는 것을 알게될지도 모른다.
- 하늘에서의 보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.

+프란치스칸 여정 214쪽 과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서문을 참조하시오

토론, 의견제시나 저널에 쓰기

+참된 행복 중의 어떤 것이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개인적인 약속을 잘 반영해 줍니까?

+위에 언급된 회칙조항을 읽은 후, 프란치스칸은 참된 행복을 어떻게 특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?